

케이스베이스시스템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

조 대 연

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

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

(전화) 0562-60-1405, (E-mail) dyjoh@han.ac.kr

케이스베이스추론은 인간이 행하고 있는 추론의 한 가지 모델로 제시된 후, 케이스베이스추론은 디자인 등 특히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룰베이스추론이나 모델베이스추론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, 실제로 케이스베이스추론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. 케이스베이스추론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특히 변화가 심한 분야에서 케이스베이스추론이 과연 의사결정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.

본 연구는 그 기술변화의 정도가 급격한 텔레코뮤니케이션의 한 분야인 인터넷웍 디자인 분야에 케이스베이스추론을 적용시킨 시스템 CIDA를 통하여 케이스베이스시스템이 그 분야의 지식을 지닌 인간 인터넷웍 디자이너에 비해 어느 정도나 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.

발표분야: 정보통신/인공지능/전문가시스템